

누가 거위의 배를 가르나?

 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망중립성 이야기



누가 거위의 배를 가르나?

 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망중립성 이야기

글/그림_ 임현 스토리/검수_ 고려대학교 인터넷법클리닉

CONTENTS

제1화

왜 우리는 돈을 내고 합당한 5G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가? 1

제2화

인터넷 전화를 통해 알게 된 정보,
인터넷은 원래 무료이며 우리는 접속료만 내면 된다. 4

제3화

인터넷은 직접 연결이 아니라 상부상조의 약속·민주주의적 약속이다. 8

제4화

당장의 이득보다 중요한 인터넷의 가치, 망 중립성과 정보혁명의 관계 12

제5화

왜 국내 동영상 플랫폼은 망하고 유튜브는 살아남았을까? 15

제6화

망 사용료는 없다. 18

제7화

제로레이팅, 공공을 위한 방법인가 자사 콘텐츠를 팔기 위한 수단인가? 21

제8화

네트워크 슬라이싱 그리고 망 중립성 폐지,
소비자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결정 ... 25

누가 거위의 배를 가르나?

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망중립성 이야기

[제1화] 왜 우리는 돈을 내고 합당한 5G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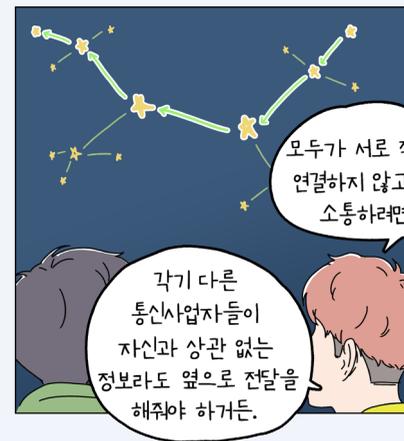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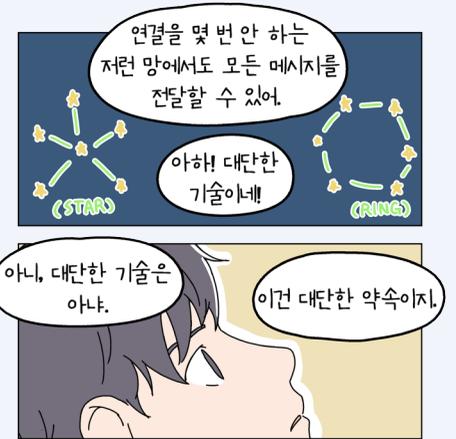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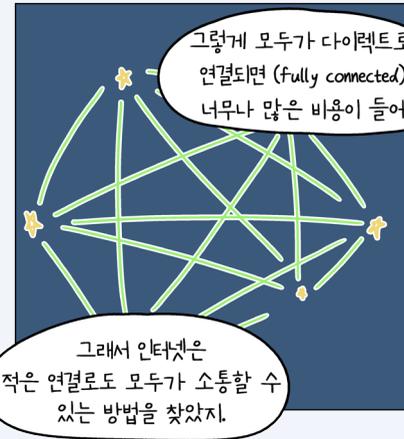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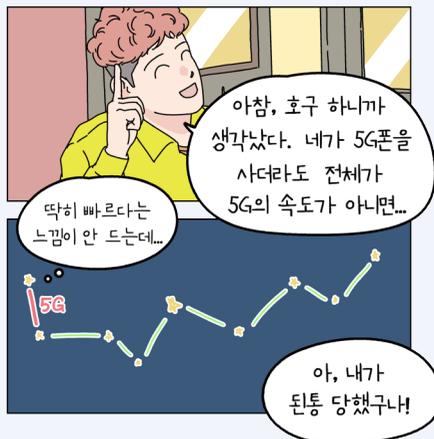


누가 거위의 배를 가르나?

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망중립성 이야기

[제2화] 인터넷 전화를 통해 알게 된 정보,
인터넷은 원래 무료이며 우리는 접속료만 내면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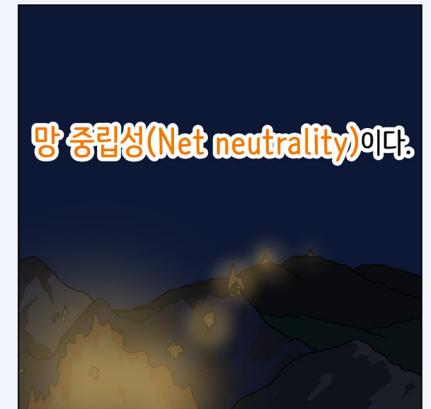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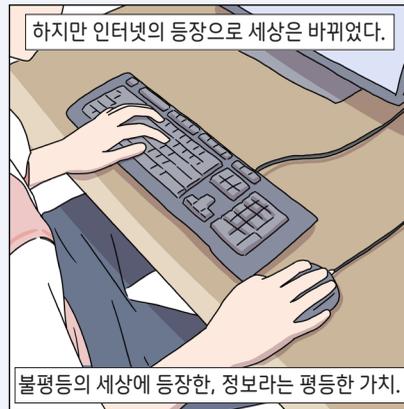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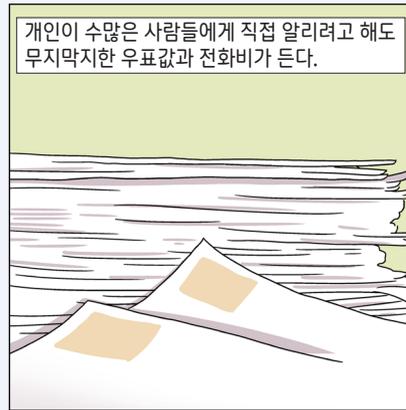


누가 거위의 배를 가르나?

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망중립성 이야기

[제3화] 인터넷은 직접 연결이 아니라 상부상조의 약속·민주주의적 약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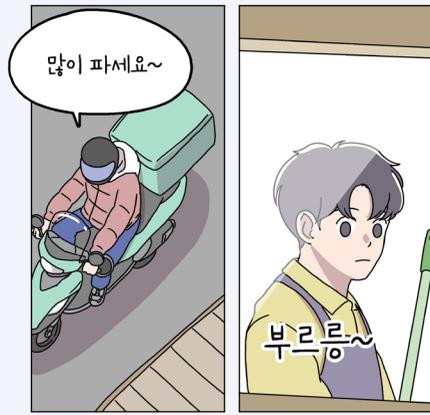




누가 거위의 배를 가르나?

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망중립성 이야기

[제4화] 당장의 이득보다 중요한 인터넷의 가치, 망 중립성과 정보혁명의 관계





누가 거위의 배를 가르나?

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망중립성 이야기

[제5화] 왜 국내 동영상 플랫폼은 망하고 유튜브는 살아남았을까?





돈 욕심을 너무 내셨어요, 대표님. 실망합니다.



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. 광고를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걸요. 정말 죄송합니다. 하지만...



돈 욕심을 낸 건 저희가 아닙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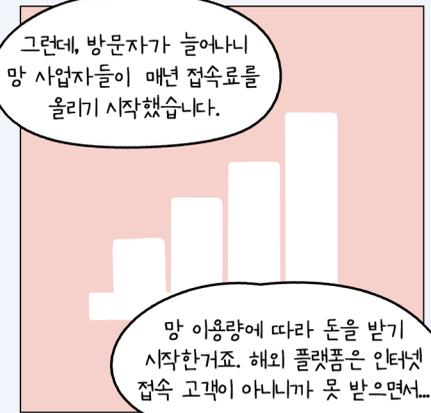
무슨 말씀이 그래요? 창작자들에게 책임 전가라도 하시려고요?



인터넷이 무료라는 건 알고 계시죠? 개인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.

뭔 소리야. 돈 내고 인터넷 쓰는데

3년 전엔 몰랐음



그런데, 방문자가 늘어나니 망 사업자들이 매년 접속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.

망 이용량에 따라 돈을 받기 시작한거죠. 해외 플랫폼은 인터넷 접속 고객이 아니니까 못 받으면서...



저희가 지나치게 많은 광고를 삽입한 이유는, 매출에 비해 너무 많은 사용료를 내야 했기 때문이에요.

사용료? 세금 말씀이세요?

아뇨. 세금이 아니라...



망 사용료. 망 사업자에게 내는 돈이요.



망 사용료는 많이 팔수록 월세를 더 내라는 개념이에요.

저희 같은 스타트업 말고 사용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만 들어와 장사를 하라는 말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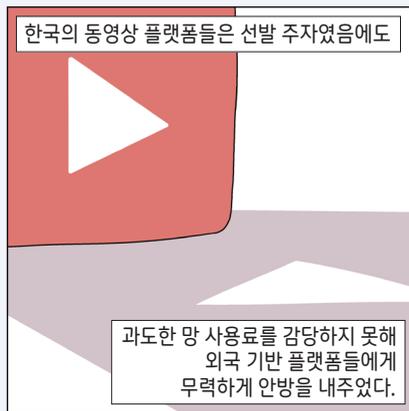


인터넷 전트립리케이션입니다.



저희는 매출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망 사용료로 내야 합니다.

광고를 넣지 않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었어요.



한국의 동영상 플랫폼들은 선발 주자였음에도

과도한 망 사용료를 감당하지 못해 외국 기반 플랫폼들에게 무력하게 안방을 내주었다.



통신사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면 안 되나요?

자유경쟁이라면 그렇지요. 저희같은 콘텐츠 제작사들은 자유경쟁을 합니다.

하지만 망 사업자들은 아니에요.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포화시켜서 경쟁이 없기도 하지만...



이제 더 심해졌어요. 발신자종량제가 도입되면서 다들 접속료를 막 올렸습니다. 인기 있는 플랫폼은 나가라는 거죠.

자신들의 망에 좋은 콘텐츠를 올리려는 경쟁을,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.

누가 거위의 배를 가르나?

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망중립성 이야기

[제6화] 망 사용료는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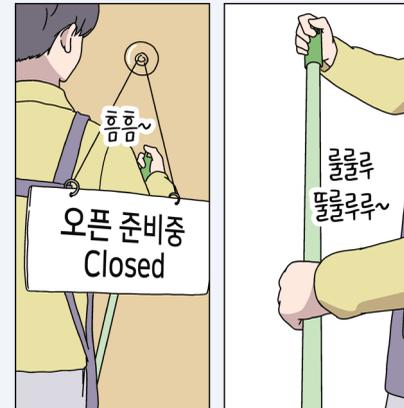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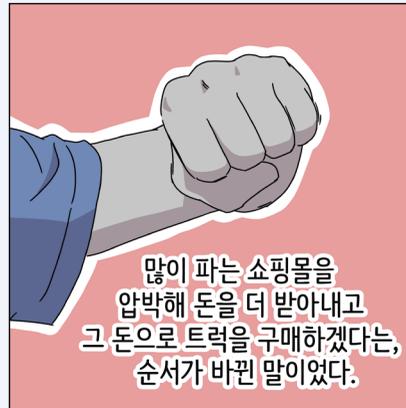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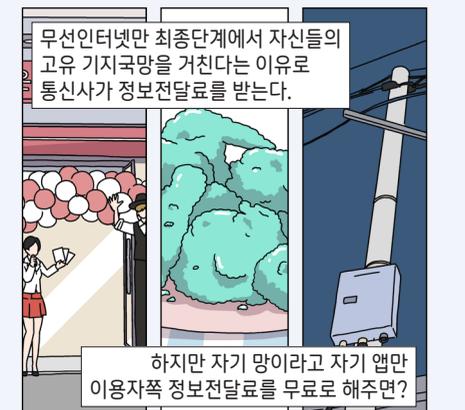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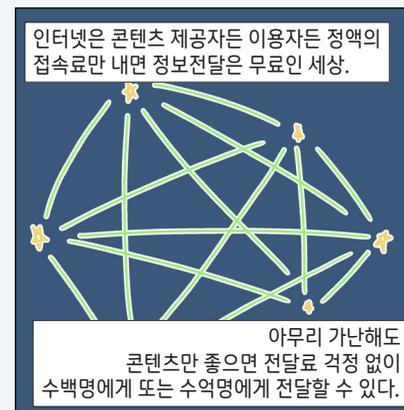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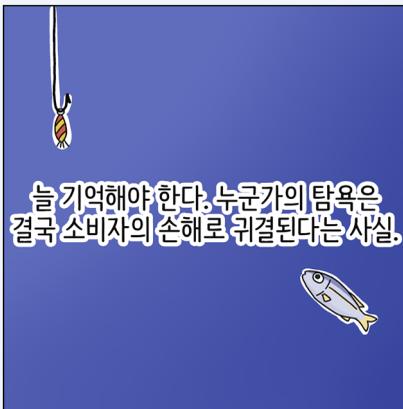
누가 거위의 배를 가르나?

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망중립성 이야기

[제7화] 제로레이팅, 공공을 위한 방법인가 자사 콘텐츠를 팔기 위한 수단인가?







누가 거위의 배를 가르나?

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망중립성 이야기

[제8화] 네트워크 슬라이싱 그리고 망 중립성 폐지, 소비자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결정





공공노선을 만든다는 핑계로
망을 나누고, 프리미엄을 낼 수 있는
대기업들의 콘텐츠만 오갈 수 있는
전용노선이 생기면...



일반 차선의
혼잡이 늘어나겠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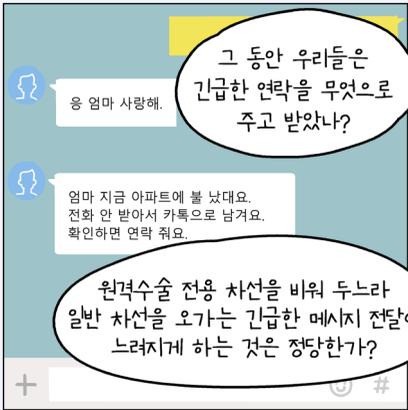
그런데, 원격수술은 무조건
일반 차선보다 더 긴급한 것일까?



'망 중립성'이라는 약속 위에
피어난 꽃들이다.



어떤 결정은
모두에게 이득이지만,
어떤 결정은
한 쪽만 이익을
가져간다.



엄마 사랑해.

그 동안 우리들은
긴급한 연락을 무엇으로
주고 받았나?

엄마 지금 아파트에 불 났대요.
전화 안 받아서 카톡으로 남겨요.
확인하면 연락 줘요.

원격수술 전용 차선을 비워 두느라
일반 차선을 오가는 긴급한 메시지 전달이
느려지게 하는 것은 정당하냐?



돈을 더 낸 사람의 정보가
더 빨리 전달된다는 건,

결국 모든 데이터를 옆으로
한 칸씩 조건없이 전달한다는
원칙이 깨지는 것이다.



5G라는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.



이 결정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?

탐욕을 부리는 건 어느 쪽인가?



인터넷에서만큼은 1등석이나 유료 전용차선을
만들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켜왔기에

우리는 세상 모두와 무료로 소통할 수 있었다.



인터넷의 보급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유산들은

좋은 길목을 독점하고 통행세를 받거나
통행조건을 걸지 말자는



우리는 왜 '세계 최초'라는 허망한 타이틀을
위해 쓰지도 않을 서비스에 돈을 더 냈는가?

이 타이틀은 소비자를 위한 결정인가?



공공을 위한 일이라면
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.

우리는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
세금을 내고, 투표를 한다.



누가 거위의 배를 가르나?

Yml 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맞춤형성 이야기

초판_ 1쇄 발행 2020년 11월 11일

제작_ 한국인터넷기업협회

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701호

02-563-4651(정책국)

<http://www.kinternet.org/>

벤처기업협회

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, 마리오타워 8층

02-6331-7000

<https://www.venture.or.kr/>

*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.



누가 거위의
배를 가르나?

2011 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망증립성 이야기